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워

유안진



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웠다고
비로서 가만가만 고백하고 싶습니다.

황금저택에 명예의 꽃다발로 둘러 쌓여야만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길지도 짧지도 않았으나
걸어온 길에는
그립게 찍혀진 발자국들도 소중하고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주는 사람과
애기거리도 있었노라고...

작아서 시시하나 안 잊히는 사건들도
이제 돌아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있었노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은 아름답고 아름다웠느니
앞으로도 절대로 초조하지 말며
순리로 다만 성실을 다하며
작아도 알차게 예쁘게 살면서

이 작은 가슴 가득히 영원한 느낌표를 채워 가자고
그것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의 추억과 재산이라고
우리만 아는 미소를 건네 주고 싶습니다.

미인이 못 되어도
일등을 못 했어도
출세하지 못 했어도
고루고루 갖춰놓고 살지는 못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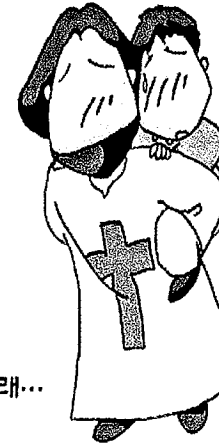
우정과 사랑은 내 것이었듯이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것이듯이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대 내 가슴에 영원한 느낌표로 자욱져 있듯이
나도 그대 가슴 어디에나
영원한 느낌표로 살아있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6권 3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8월 28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무엇이 가장 힘들지?

주님
다시...지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만 누르는
살의 무게가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
무척 외롭습니다.



그래...

오늘 찬 새벽
주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니?"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산기슭 바라보는 저녁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강철하시니 아멘나이다(시137:1)

고개를 떨군채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요...."

그분도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라는 사람때문에 힘드셨습니다.

◀그땐 그랬지▶ 소득차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흰색 연기를 내 뿜으며 동네 한가운데로 소득차가 지나갔습니다. 으레히 소득차 뒤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뒤따라 뛰어다녔지요. 그날이 그날같은 변화없는 시골의 일상에서 구름같은 연기와 독특한 소득차 냄새를 갖고 나타난 소득차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분명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소득차가 흰 연기를 뿌리며 다니고 있을까요? 무대장식처럼 하얀 소득차 뒤의 연기속에 슬쩍 한 발 들여밀어 서 보고 싶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늙어 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 지지 않는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하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5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3 (마 6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85장	
기도 Pray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1: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공용준 목사 (양문교회)
찬송 Hymn	204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9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28	이규임	박병민	<현관> 박일영, 최재학
4	이재영	박상욱	
11	장현중	박수진	<본당> 노은숙, 정희자
18	정덕수	박 실	
25	지찬영	박제란	

◆8,9월의 교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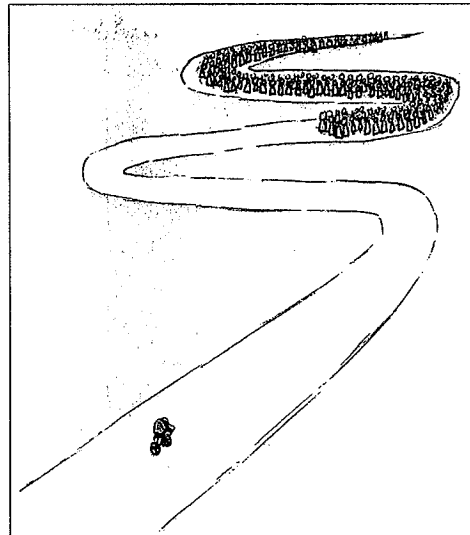
주 일	예배와 모임
28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4	성찬식 아버지주일 Father's Day(4) 구역예배(9)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13)
18	식사친교주일 추석(18), 구역별BBQ
25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곧 9월을 맞습니다. 9월은 가을이어도 좋고 봄이어도 좋습니다. 고국처럼 가을의 풍요로움도 좋고 여기처럼 봄의 해맑음도 다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을같은 황혼을 살더라도 봄 같은 맑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교우소식
<한국귀국> 유성인 집사 가정. (지난 22일)
- 오늘의 설교: 공용준 목사 <양문교회(성남)>
- 정기당회: 친교시간 후에 모입니다.
- 아동부 예배실 변경
*Hall 공사기간동안 St David's에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하여 자녀들을 St David's Church로 부모님께서 손수 데려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년부 신앙축제 "HAMA 잔치" <일시> 9월2일(금) 저녁 7시
<장소> Auckland 음악대학 Hall(Symons St)
*믿음의 청년들이 그들의 방식과 재능으로 다양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많이 격려하여 주실 때 깨끗하고 건강한 Young Christian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 교회사무실 변경
*교회당 옆으로 옮겼습니다.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교회당>
*조금은 조명이 어두운 듯한 수요일 밤의 교회당, 그래도 익숙해지니 잘 모르겠더군요. 한 주간의 중간에 다시 믿음을 단도리하다보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착한 시인들▶



남들보다 뒤쳐졌다는 생각에
떨고있는가.
두려워말라.
당신은 묵묵히 가지만 하면 된다.
당신의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